

* 파초화상이 대중에게 보이며 말했다. "너희가 지팡이를 갖고 있다면 내가 지팡이를 주겠다. 만일 지팡이가 없다면 너희에게서 그것을 떼겠다."
 * 나 해개가 말한다. "(그것을) 의지해 다리가 굽긴 물을 건넜고, (그것을) 벗삼아 달없는 마을을 찾아들었다네. (이것을) 만일 지팡이라 한다면, 화살보다 빠르게 지옥에 떨어질 것."
 * 송하어 가로되. "제방(諸方)의 깊고 얕음, 이 모두가 내 손 안에 있다. 하늘을 피고 땅을 떠받쳐, 이는 곳마다 종풍을 휘날린다."
 芭蕉杖杖:
 芭蕉和尚, 示衆云, 爾有杖杖子, 我與爾杖杖子, 爾無杖杖子, 我奪爾杖杖子, 無門, 扶過斷橋水, 伴歸無月村, 若喚作杖杖, 入地獄如箭。
 頌曰, 諸方深與淺, 都在掌握中, 撐天并拄地, 隨處振宗風。
 당(唐)의 수도 장안(長安)은 국제적 문화와 정치의 중심지로 수많은 외국인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안사의 난 이후 제국의 영화가 기울어갔어도 변방으로부터의 유학의 행렬은 그치지 않았다.
 그 속에 파초(芭蕉)라는 신리의 승려가 끼어 있었다. 그의 <오동회원> 권 9에 그의 행적이 실려 있다. 본명은 혜청(慧淸)으로 위양종의 법계이다. 위산은 스승 백정이 낸 시합문제

한형조 무문관 발행

73

파초의 지팡이



그림 · 문병성

“영원의 지팡이에 의지하라”

집 내려놓은 도인에게 모든게 풍류

를 바로 차버림으로써 대위산의 주지가 되었고(제67강), 그 뒤를 이은 양산은 꿈 속에 미륵과 대면하면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은 출격(出格)의 대장부였다(제40강). 그들이 연 선의 한 큰 줄기인 위양종의 문하에 남담(南塔)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파초는 스물 여덟의 어느날 양산(梁山)에 거하고 있는 남담을 찾아가다. 남담이 땅에 올라 이런 설법을 폈다. "대장부라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여찌 사자후(獅子吼)를 토하지 않겠느냐." 이 소리에 그의 심신이 문득 열득(歇得), 편안해졌다. 그 후 다섯해를 이곳에서 머물며 법을 익혔다. 선의 정자들이 대개 그렇듯이 그의 이력은 여기서 멈춘다. 대신에 오고간 법담과 화두가 나머지 공간을 채우고 있다. 그는 아마도 신리에 다시 돌아가지 않은 듯하다. 파초라는 이름을 얻은 것을 보건대 중국의 영주(영주(寧州)) 땅 파초산(芭蕉山)에서 머물며 법을 뒀던 모양이다.
 그런 그가 어느날 법상에 올라 이런 소리를 했다. "너희들이 지팡이가 있다면 그것을 주겠다, 없으면 도로 뺏겠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의 문헌에 나타나는 수많은 역설과 모순에 접했다. 한 두번도 아니고 화두마다 독자를 막다른 골목에 밀어넣는다는 필연적인 이유가

만 인간을 장악하고 있는 물질적 욕망의 네트워킹을 찾아내야 한다. 파초의 지팡이는 바로 그 그물의 버리를 끊어내려는 방법적 장치이다. 너는 지금 자아라는 맹목의 지팡이에 팔려다니고 있다. 그것을 내던지고 초월과 영원의 지팡이에 의지하라. "지팡이를 갖고 있느냐. 내가 진짜 지팡이를 너에게 주마." 이 제안에 반발하는 부류도 있다. "나는 이미 그 같은 맹목과 무지를 벗어났다. 나는 나의 주인이다." 파초는 그런 사람들의 어설픈 자만심과 착각을 두드린다. "지팡이가 없다 하느냐. 그렇다면 너의 그 지팡이를 뺏어야겠다."
 조주의 노파심을 기억한다. 그는 어느날 학인에게 다짜고짜 짐을 내려 놓으라고 다그쳤다. "아니, 빈손인데, 무슨 짐을 지고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조주 왈, "그럼, 계속 지고 다니게나."
 자아의 고착이 다른 아닌 무명(無明)의 정체이다. 그 근본불각(根本不覺)의 짐을 내려 놓은 한가한 도인에게 모든 것이 풍류요 만행이다. 그는 그 지팡이 아닌 지팡이가 다리도 없는 여울을 성큼 건너고, 달도 없는 마을의 어둠 속을 휘적리며 걸어간다. 갑자기 다리가 근질거리기 시작한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모든 현상 비어 있음 보자

"선과 악은 오직 마음에서 일어난다. 만약 우리가 마음을 주의깊이 지켜본다면, 우리가 일생을 바쳐 연구해야 할 주제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주제는 결코 우리를 권태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방에 앉아서 마음의 변화를 지켜보면 된다."
 아잔차 스님의 지적은 수행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책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33

이것은 좌선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이 심각한 곳에서 운전할 때에

수행의 장애 ④

도, 결혼을 할 때에도, 친구를 사귀는 때에도, 사무실에서 일할 때에도 스님의 지적은 동일하게 큰 힘을 발휘한다.
 사실 법은 우리의 눈길 닿는 어디에나 있다. 짐을 지는 일, 길을 걸어가는 일, 선방에 앉아 있는 일, 이 모든 것이 법 그 자체라는 것이다.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보면, 이 세상에서 법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바르게 보지 않으면 안된다. 행복과 불행, 고통과 즐거움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가 그 본질을 이해하면 부처와 법이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명료하게 볼 수 있으면 그때 순간 순간의 모든 경험은 다 법인 것이다.
 19세기 미국의 여류시인 에밀리 디킨슨은 '돌맹이는 얼마나 행복할까(How Happy Is the Little Stone)'라는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길 위에 홀로 쉼구는 어떤 우연에서도 설리를 지킨다.
 그런데 우리들은 대개 즐거운 것이면 무엇이냐 "참 좋다.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괴로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없어져라. 지겨워, 필요 없어" 하면서 맹목적으로 반응한다.
 그러나 디킨슨의 돌맹이가 처럼 어떤 일을 겪든지 그 경험의 본질에 대해 아주 소박한 자세로 마음을 열어놓는다면 우리는 부처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빠르게 보게 되면 모든 것은 너무나 소박하고 순수하다. 즐거운 일이 생기더라도 비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괴로운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해하면 된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소멸하기 때문이다. 모든 현상을 자신인 듯이, 혹은 자기가 그

회로애락 어떤것도 자신의 것 아닌 줄 알면 해탈로 가는 지름길

하찮은 돌맹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성공을 걱정하지도 않으며 위기를 결코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그의 코트는 자연의 갈색 우주가 지나가며 걸쳐준 것. 태양처럼 자유로이 결합하고 또는 홀로 빛나며, 덧없이 꾸밈없이

불교와 수학

77

문화와 문명

김용운

최근 국제회의의 물결 속에서 S. 힌딩톤의 '문명충돌론', '일본 대중문화 개방' 등 문명·문화라는 말이 자주 거론된다. 그러나 문명과 문화에 관한 정의가 애매하여 혼동될 때가 많다. 불교 역시 불교문명과 불교문화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유태인은 2천년 전에 고국에서 추방되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폴란드인은 러시아, 독일, 헝가리 등 3국으로 분화되어 있을 때 단일 민족이었다. 우리는 일제 식민지하에서 모진 강압에 의해 일본인 문화를 강요당했고, 그 후 남북으로 분할되어 있으면서도 단일민족임을 의식해 왔다.
 이와 같이 민족을 하나로 묶는 것은 언어·종교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그중 어떤 하나만 두고 그것이 곧 단위원단을 민족으로서 존속시키는 결정적 요소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분명히 각종 문화 요소를 파생시키는 기층적인 문화의지(원형)가 존재한다.
 우리가 민족임을 처음으로 자각했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82

을 때(상징적으로 말하자면 단군시대) 여러개의 부족적인 언어가 융합하여 원한국어(원)가 되었다. 즐거움과 슬픔 등 온갖 원초적 감정을 예술화시키고 또한 순박한 윤리적 바탕이 한국 원시종교를 형성했다. 언어, 종교, 예술, 과학... 등은 분야마다 다른 목적과 수단을 지닌다. 그러나 이들은 한결같이 민족사회의 정신적 욕구에 대응하면서 서로 깊은 관련 속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단위 문화권을 구성

항목을 연주해 낸다. 이 공통의 악보에 해당하는 것이 원형이며, 각 악기의 음악은 각종 문화분야에 해당된다.
 민족은 위대한 생명체이며 그것이 처음 형성되었을 때 생명력이 있는 원형이 갖추어졌다.
 민족의 구성원은 태어나고 죽으면서 생명체로서의 민족을 유지·보존하며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다. 따라서 문화는 역사성을 지니며 민족 고유의 내용이 타문화권에 그

문화는 여과 거처서 자국화 일즉다 다즉일 원리와 유사 문명, 타문화권에 그대로 전달

한다. 타문화와의 교류없이 자력으로만 가꾸어 온 순수한 문화란 있을 수 없으며, 끊임없이 타문화와 교류하면서 민족 고유의 정신(原形) 위에 종교, 과학, 예술 등을 개화시키는 것이다.
 가령 이것을 교향곡에 비유하여 생각해 보자. 교향곡에는 바이올린·첼로·클라리넷·트럼펫 등의 수많은 악기가 동원된다. 이들 악기마다 나오는 소리는 각기 다르지만 공통의 악보를 가지고 서로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아름다운 교

향곡을 연주해 낸다. 이 공통의 악보에 해당하는 것이 원형이며, 각 악기의 음악은 각종 문화분야에 해당된다.
 민족은 위대한 생명체이며 그것이 처음 형성되었을 때 생명력이 있는 원형이 갖추어졌다.
 민족의 구성원은 태어나고 죽으면서 생명체로서의 민족을 유지·보존하며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다. 따라서 문화는 역사성을 지니며 민족 고유의 내용이 타문화권에 그

문화는 여과 거처서 자국화 일즉다 다즉일 원리와 유사 문명, 타문화권에 그대로 전달

한다. 타문화와의 교류없이 자력으로만 가꾸어 온 순수한 문화란 있을 수 없으며, 끊임없이 타문화와 교류하면서 민족 고유의 정신(原形) 위에 종교, 과학, 예술 등을 개화시키는 것이다.
 가령 이것을 교향곡에 비유하여 생각해 보자. 교향곡에는 바이올린·첼로·클라리넷·트럼펫 등의 수많은 악기가 동원된다. 이들 악기마다 나오는 소리는 각기 다르지만 공통의 악보를 가지고 서로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아름다운 교

양심을 찾고 믿음을 회복하자

자기 버림의 위대한 승려자로 살 것을 서원한 출가 수행자여!
 무슨 염치로 무슨 낱으로 말하여야 하나 는 뜨고는 참회 하여야 할 말을 잃어버린 이 자리 피를 토하고 뼈를 태우는 아픔으로 용서를 빈다.
 자기 정화와 인간 자각을 위해 하심과 인욕행으로 정진하여야 할 수행자여!
 종단의 도덕성이 무소유의 삶이 흥취지고 자기 기만과 독선의 노에되어 사는 것이 출가 수행자의 양심이며 자존심일수는 없다
 인연있는 출가수행자여!
 해와 달이 허공에 눈이라면 인간의 양심은 인간 존재의 뿌리요 인간의 존엄한 양심에서 정의의 줄기가 나오고 신용의 꽃이 피고 성실의 열매가 열리며 도덕의 향기가 살아 숨 쉰다
 양심이 행방불명되면 독살인 배신자 파렴치한 자로 전락하게 된다
 깨지는 아픔이 있어도 출가 수행자여 양심을 찾고 믿음을 회복하여야 산다.
 선 방법에는 파란만 끊겨 되고 거지는 황궁에서도

식은 밥덩이를 구하여서일까 같은 물을 마셔도 소는 젖을 배풀고 뱀은 독을 빨는다
 얼빠진 스승제들의 속보이는 것에 숨 막히고 절망적인 종단의 현실
 때를 씻고 먼지를 닦는 현결레 빗자루 보기 부끄러워 나 자신에게 버림받고 싶다.
 정적과 겸손으로 어둠을 밝히는 동불이 되어야 할 수행자여!
 어느 누구도 나를 속이거나 경멸하며 아집과 독선의 노에가 되고 돈과 권모며 술수로서 지도자 짓은 자기 얼굴에 침뱉는 것이며 불신과 경멸 받을 진한 것이요 인과적으로도 씻지 못할 죄업이다.
 정의와 정도를 위해 오늘을 살며 내일을 역사해야 할 전법 수행자여!
 진리와 정의는 위선과 위악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리를 속일 수도 있고 면할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물안의 물고기가

저 죽을줄 모르고 그물안을 숨을 곳으로 아는 것과 같다.
 손바닥으로 하늘은 가릴 수 없고 그물로는 바람을 붙잡아 둘 수 없다
 정법 수호를 위하여는 일이라면 한몸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서원으로 정진하는 수행자여!
 거짓은 나를 속이는데 아니다
 자신을 먼저 속이고 죄와 악의 씨앗을 낳는다
 모래로 밥을 지어 씹을 수 없고 땀으로 향을 만들어 쓸 수 없다
 계 귀를 틀어막고 소리는 들을 수 없고 타버린 새앗에서 싹은 찾을 수 없다
 동은 비단으로 싸도 그 냄새는 막을 수 없다
 진실은 잃으면 자기를 잃게 될을 깨달아야 한다
 정적과 겸손은 인간승리의 동불이 된다.
 눈과 손이되어 정진하여야 할 출가수행자여!
 내몸의 썩은 부위는 아픔의 고통이 있어도 수습하여야 한다.
 치료의 고통이 두려워서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

불조의 혜명을 계승하는데 언뜻되고 등불되어야 할 출가수행자여!
 빛이 되고 거울 되어야 할 수행자여!
 여기 기억하고 사랑하며 존중되어야 할 승단의 생명은 서로 아끼고 위해주고 공경하며 신뢰와 화합하는 일이다.
 정적과 겸손으로 거듭나 성찰의 눈을 떠 화해와 화합의 장을 열자
 나 자신부터 거듭나야 한다
 양심을 찾고 믿음을 회복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서원과 화합으로 정진하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시작하는 마음 세 뿌리는 마음으로 정진하는 것만이 우리의 길이다.
 출가수행자여! 출가 시절로 돌아가자 사문의 고향은 푸른 산이다
 절목의 산 기도의 산
 제물 썩혀 뿌리 찾는 나뭇잎을 보라
 출가사문이며 산으로 돌아가 산되어 살자
 님의 눈빛 미소
 우리를 가슴에 등불로 타게하자

생명의 나라 진리의 고향 백련 참회굴에서 시인 대우 합장